



“원자력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새로운 마음과 변화된 자세 필요”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원전 산업계의 성과

국내의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3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이자, 제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역할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연차대회는 원자력계의 산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체코, 영국, 일본 등 11개국에서 원전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께서 찾아주셨습

니다. 먼 곳에서 찾아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처음으로 이 땅에 건설된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자력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잘 살아보자’는 여망을 담아 원자력이라는 최첨단 에너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진흥 정책에 따라 발전 기능의 핵심으로 빠르게 운영과 건설 기술력을 쌓으면서 경제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원전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특히 UAE에는 우리가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4기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원자력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산업계의 변화의 바람

이번 대회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내일을 준비하는 원자력'입니다. 이제 원자력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예방정비, 고장 정비, 건설 당시의 문제점 등으로 11기의 원전이 멈춰 선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원전 가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원자력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산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원전 가동률이 낮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안전성과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서로 프로답게 자원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원칙에 따라 협업해 나갑시다.

나아가 IoT, 각종 센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의 국내 생태계 또한 더불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전체가 건강할 때 우리 원자력의 경쟁력은 커질 것입니다.

원자력계 미래 전략 정립해야

원전 수출과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를 비롯한 해체 기술력 확보 등도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일입니다. 원자력계가 해외 우수 기업과도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쌓기 위해 매진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계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치밀한 전략을 신속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원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원자력계 모두가 힘을 모을 때만이 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원전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만 10년, 20년 뒤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의 새로운 마음과 변화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차 대회가 원자력계를 둘러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역량을 키워나갈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에는 국제원자력산업전과 원자력기자재 구매 상담회, 원전해체기술로드쇼 등 부대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두루 관람하시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